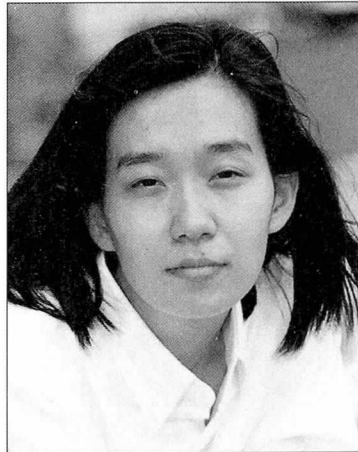


# 1999년의 작가가 2009년의 작가에게 보내는 편지

## 십년 후의 당신에게

한강 · 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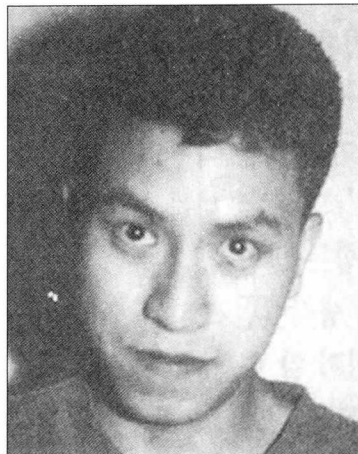
십년이라는 시간이야 금세 흘러가겠지요. 한치 앞의 일들도 알 수 없는 게 삶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십년 후에도 저 역시 계속 글을 쓰고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제 어리석고 작은 허물을 여러 번 깨쳐 더 넓고 깊은 사람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인으로서의 주위 사람에게 아주 조금씩이나마 빛을 던져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기를, 제 글 또한 이 세상의 무수한 빛에 조금의 밝은 기운을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버려 가볍고 자유로워지기를, 그래서 삶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훈풍의 햇빛과 바람 속에서도 느낄 수 있기를.

십년 후의 당신이 지금과 무척 다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연 속에서 길어올린 언어들, 읽는 사람들의 심연에도 가 닿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신의 글을 읽어 내 몸 깊은 곳이 울릴 때마다 저는 행복할 것입니다. 제 글이 그때 당신에게도 아주 작은 울림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더더욱, 말할 수 없이 행복하겠지요. 그러나 설령 그러지 못한다 해도 저는, 그리고 당신은 계속 쓸 것입니다. 그 쓰는 행위로 우리들의 한계를 으스스리뜨리며 번쩍 뛰어 넘어가려 애쓰고, 애쓰고 하는 일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때, 외로워하지 않고 그 절망들을 맑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요히 견디는 힘을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면 순간 순간을 처음이자 마지막 순간으로 여기는, 치열하게 깨어 있는 마음이 필요하겠지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너무 작고 나약한 제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서로를 지켜봐주셨으면 합니다. 십년 뒤의 당신. ❖

## 브레이크

백민석 · 소설가



아침 8시 51분이다. 지난 밤 꼬박 다음달에 넘길 장편의 원고를 쓰고 두어 시간 빈둥대다가, 다시 '혼글'을 열었다. 네게 편지를 쓰기 위해서다.

솔직히, 이런 편지는 처음 쓴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수취인이러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너, 2009년의 작가에게 편지를 띄우라니..... 2009년은 너무 멀어보인다. 그래서 얼마나 크고 정확한 목소리를 내야 거기까지 제대로 가 닿을지 나는 알 수가 없다. 겨우 10년 후인데 무슨 엄살

이냐고? 그렇지 않다.

나는 5년 전인 1995년에 작가로 '태어났다.' 이 역시 겨우 5년 전이지만, 그 사이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내가 따라잡을 수 있었던 변화도 있었고, 영 따라잡을 수 없었던 변화도 있었다. (그래도 너는 참 행복한 놈이다. 편지를 받을 수 있어서. 내가 태어났을 때 이런 식의 선배 작가의 편지는커녕 내게 배달된 수취인 주소조차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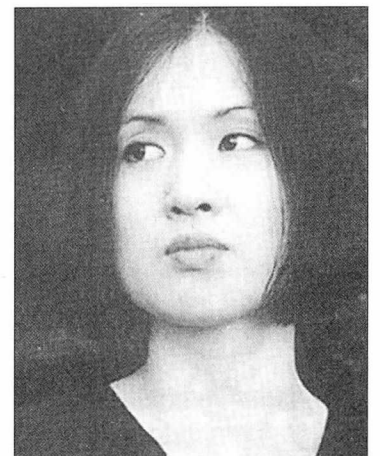
90년대는, 극심했었다. 역사든 경제든 문화든 무엇이든 극심했었고, 변화가 극성스러웠다. 그랬다는 사실은 99년의 서점 가판대에 올라왔은 온갖 잡지들의, 전에 없던 기이한 면면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무엇을 하자고 '편집'되었는지 통 알 수 없는 잡지도 수두룩하다. 내가 가판대에서 가장 최근에 발견한 가장 기이한 잡지는 동성에 잡지 《버디》였다. 1999년이 이러니 2009년은 더욱 기이할 것이고, 더욱 미시적일 것이고, 갈수록 빨라질 것이다.

변화에서 잘 살아남는 길은 뭘까. 2009년쯤이면 나는 벌써 '이미 죽은 작가'가 되어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놓치고 있고, 갈수록 더 많은 것을 놓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미 죽었다'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다. 살아 있다고 해도, 지금의 나와는 전혀 다른 나일 것이다.

정말 그럴까. 변화가 극심해, 문학도 죽고 나도 죽을까(나도 작가다, 알겠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문학에는, 그 느릿느릿한 '독서'라는 행위처럼 세상의 속도를 늦추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광기의 질주 속에서도 때론 브레이크를 지긋이 밟아보고 싶어한다. 브레이크를 갈망하기도 한다. 이것이 2009년의 네게 건네주고 싶은 한마디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2009년의 나에게 건네주고 싶은 한마디다. 더 좋은 문학이 되라, 브레이크로서의 품격이 아깝지 않게. ❖

## 불안한 마음

조경란 · 소설가



당신은 아직도 소설을 쓰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시대의 소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소설을 쓰기 이전부터 저는 그런 고민을 해왔더랬습니다. 차라리 그 고민에 휩싸여 있을 적에는 소설에 관해 더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세상 밖으로 한편 한편 소설을 내보내기 시작하면서, 어쩌면 저는 오랫동안 그 최초의 질문과 회의를 애써 잊거나 외면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도 한번쯤은 '소설이 무얼 할 수 있는가' 혹은 '왜 소설을 쓰는가' 라는 막막한 질문에 부딪혀보았겠지요.

그래요, 문학은 세상의 모든 불확실한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가끔 헛것에 싸여 긴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전령(傳令)들을 따라 정처없는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헛것들은 우리에게 육체를 만들어 세상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끊임없는 전갈을 보냅니다. 그것들은 언젠가 억압당한 기억을 갖고 있는 것, 부정함 힘에 의해 연약하게 무너져 버린 것, 혹은 한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문학을 통해 그것들의 정체를

다름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



----- 업그레이트 DR 1999 #@\$%^&\* : ;|~

남과 다르다는 것이 타부시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과 다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뭔가 남다른 기획과 결과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름기획**으로 오십시오.



**다름기획** 121-220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95-1번지 5층  
 TEL. 325-6260~1 fax. 325-0944  
 E-mail. darumman@uriel.net, darumman@hotmail.com

다름에는 있다 2

시간 커뮤니케이션 브로슈어 · 카탈로그 · 홍보물 · 패키지 · CI · BI · Annual Report 출판 커뮤니케이션 전지 · 시사 · 사회악보 · 포지디자인 (단행본, 아동, 학습서) · 편집디자인 · 일러스트 · 광고 커뮤니케이션 신문광고 · 전자광고 · 포스터 · POP · 캘린더

파악하고 인식하며 그 울림과 반성으로 비로소 인간의 총체적 의미를 파악하기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소하지 않은 문학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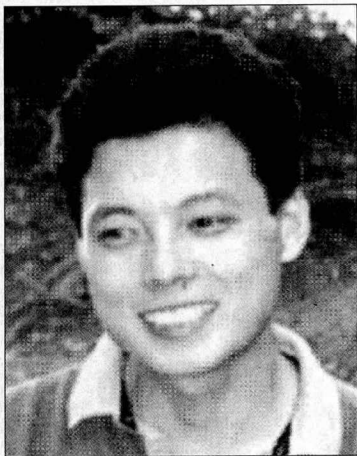
보르헤스의 말처럼 소설은 주의력과 집중과 메아리와 친화력의 메커니즘이며 확증과 예감으로 가득 찬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세세년년 우리의 문화와 정신과 그리고 오감을 받아들이는 우리들 육체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속도로 시대가 변모하고 또 변화하는 단계를 이미 지나고 있지만, 소설의 영원한 주제는 '인간'입니다.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원합니다. 당신이 '소설'이라는 생(生)의 불가항력을 짊어진 채 20세기의 긴 강을 부디 차곡차곡 건너가시기를 말입니다. ◆

## 당신을 버티게 하는 힘

전정태 · 소설가



당신을 처음 부르던 때로부터 벌써 십여 년을 물러나 있군요. 세기를 건너온 탓인지 죽히 백년 만에 그 이름을 다시 불러 보는 느낌입니다.

가끔 당신이 국내의 지면에 발표하는 시들을 잘 읽고 있습니다. 고국을 떠나던 때의 당신의 마음들이 아직도 배어 있는 시편들을 대할 때마다 낯은 책상을 손바닥으로 쓸다가 그만 가시에 박히고 만

것처럼 가슴이 아립니다. 그나마 위안이 있다면 당신이 이역 땅을 떠돌면서도 아직 시를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십년 전 당신은 시란 '사람에 대한 연민' 이라고 말했던가요.

당신이 나고 자랐던 시골의 폐가를 당신 따라 구경하던 그 늦가을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무엇인가를 버릴 결심을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 대상을 꼼꼼하게 어루만지듯 당신은 마당에 수북히 튀구는 감잎을 쓸었습니다. 그 폐가에 다시 깃들여 살 마음도 없는 당신은 무척이나 조심스럽고 떨리는 손길로 마당을 쓸더군요. 저는 당신을 읊아매던 유년의 아픈 기억들을 이제 놓아주려나 보다, 그도 아니면 시대와 화해하려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불현듯 한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떠나갔습니다.

조국을 등지는 무수한 젊은이들 틈에 당신도 묻어 나갔습니다. 그 시절 당신의 암울함을 왜 모르겠습니까? 흔히 그 시절을 희망이 없는 시대라고들 했지요. 학교를 나서자마자 골방과 거리로 방황해야 했던, 시대가 양산한 무기력한 청년들. 특히 당신은 스스로를 곧잘 '역사의 사생아'라 칭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하자는 선배들을 따라 역사의 거리에 뛰어들었으나 어느 날 선배들은 떠나고 후배들은 외면하던 그 낯선 풍경. 아무 곳에도 당신의 뿌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당신은 이십대를 마감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을 힘들게 한 것은 스스로에게 느끼는 무력감이었겠죠. 그런 당신에게 세상보다는 당신 자신이 더 '희망'을 뿔어 내라고 옥죄었습니다. 참 처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힘으로 당신이 버티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인간에 대한 믿음만은 지키고 싶어하는 당신의 몸짓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그 시절을 상기하면서 배신이니 미망이니 패배니 하는 낱말들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전 세대의 전성 체험을 바라보듯이 그저 덤덤할 뿐입니다. 그리고 천년이라는 두꺼운 세월의 더미가 덮고 말았으니까요. 남들은 조국을 떠난 당신에게 역사에서 발을 뺐다고들 말합니다만 나는 개인이 역사로부터 이렇게도 자유로울 수 없구나, 당신을 보며 느낍니다. 당신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